

2024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에 따른 청담동 성당 사목지침

“시노드 교회를 위하여: 친교, 선교, 참여”
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”

친애하는 청담동 본당 교우 여러분.

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.

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‘시노드 교회를 위하여: 친교, 참여, 선교’란 주제로 지난 2021년 10월 10일 ‘2021-2023 제16차 시노드’를 개최하셨고, 그 회기를 1년 연장하여 올해 10월 말에 폐막하기로 하셨습니다. 우리 청담동 성당도 2022년에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서 시노드의 여정에 함께하여 의견을 나누고 교구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.

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서는 시노드의 폐막을 맞는 올해, 사목교서 ‘**시노드 교회를 위하여: 친교, 선교, 참여**’를 통해 ‘**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**’라고 교구민들에게 호소 하셨습니다.

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던 작년, 청담동 본당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, 새롭게 100년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초기 신자들이 보여주었던 열성적이던 신앙의 모습처럼 ‘**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**’를 본당 사목지침으로 세웠었고, 신앙생활의 기본을 재정립하는 시기로 삼았습니다.

이를 바탕으로 2024년 청담동 본당은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의 주제인 ‘친교와 선교와 참여의 시노드 교회’를 이루기 위해, **본당 공동체의 시작점**이며, **친교의 출발점**이 되어야 하는 **구역, 반에 대한 교우들의 소속감을 고취**하고, **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친교 활동**(성사, 말씀, 기도, 나눔)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감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**선교**(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 - 시노드 의안집 52항)의 **공동체**를 이루도록 성직자, 수도자, 평신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**참여**하고 모든 사목적 노력을 집중해서 “**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존중 받는 공동체, 복음의 빛과 기쁨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풍겨 나가는 교회**”를 만들어 가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.

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.

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,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,

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,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,

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.

주님께서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.

(사도행전 2장 42~47절)

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양장욱 베드로